



# “환불해주세요” 오픈마켓 피해 매년 증가

#김모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약기를 6만1000원에 구입했지만 품질불량으로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가 왕복 택배비 8000원을 요구했다. 택배비도 아깝고 귀찮아 며칠을 머뭇거리던 사이 기한마저 지나 반품조차 어렵게 됐다.

#박모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LED형광등을 구입했지만 4개월도 되지 않아 형광등이 타버려 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폐업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 해당 오픈마켓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 소비자원 분석...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順

### 올 피해사태 434건 중 70.7% 합의... 책임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4대 오픈마켓의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0년 601건, 2011년 603건, 2012년 7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매년 4000건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피해 접수 가운데 4대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4.7%, 2011년 14.1%, 2012년 15.9%로 늘고 있다.

4대 오픈마켓을 상대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피해사태 434건을 분석한 결과 G마켓이 159건(3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옥션(119건), 11번가(100건), 인터파크(56

건) 순이었다.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0.7%(307건)였다.

업체별 합의율은 11번가가 77.0%(100건 중 77건)로 가장 높았고, G마켓 73.6%(159건 중 117건), 옥션 69.7%(119건 중 83건), 인터파크 53.6%(56건 중 30건) 순이었다.

434건 중 해당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07건(70.7%)이었다. G마켓과 11번가는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많았지만 합의율은 평균을 상회했고, 인터파크의 경우 접수 건수 자체는 적었지만 합의율이 낮았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오픈마켓

은 피해사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하지만 오픈마켓이 판매자의 주장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거나 답변을 지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4대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11번가와 G마켓이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옥션과 인터파크가 그 뒤를 이었다.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11번가(3.65점), 서비스 운영 부문에서 G마켓(3.71점), 서비스 체험 부문에서 G마켓과 11번가(각 3.65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오픈마켓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의약품 설명서, 쉽게 바뀐다

### 식약청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아스피린 등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설명서에 깨알같이 써져 알아보기 힘들었던 효능, 부작용 등 의약품 정보가 글자가 커지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요약하여 기재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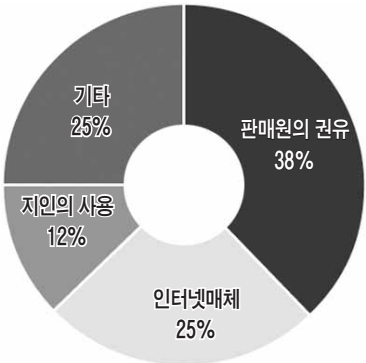
이번 개정은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

게 요약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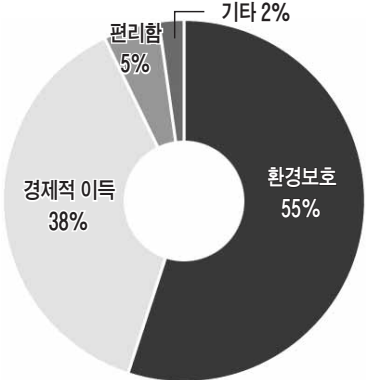
이 같은 허가사항 요약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약청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를 별도로 마련해 제약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해당 일반의약품은 텍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등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계기



##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장점



#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해 봤나요

## 경제적 이득·환경보호 이유 권장... 사용은 12% 불과

### 소비자 인식 부족... 지자체·대형마트 홍보·교육 필요

경제적 효과와 환경보호를 위해 권장하고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지자체와 대형마트,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안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회장 최양남)이 운영하는 대학생소비자 모니터단이 최근 시민(소비자)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대형마트 쇼핑 후 구매물건을 주로 박스(40%)에 담아 가져갔으며 개인장바구니(19%)와 비닐봉투(18%)가 뒤를 이었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은 12%로 극히 드물었다.

또 계산대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권장표시를 분석이 있는지는 질문에

70%가 ‘없다’고 답해 대형마트의 판매·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129명(69%)가 사용해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용계기는 판매원의 권유(38%)를 가장 높게 꼽았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장점으로서는 ‘환경보호’라는 답변이 55%, ‘경제적 이득’이 38%를 차지했다.

반면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는 답변이 43%를 차지했고 ‘디자인이 이상하다’는 답변도 11%에 달했다.

다행인 것은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는 질문에 122명(66%)이 ‘그렇다’고 답해 사용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단은 결론적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효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점이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 대형마트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지역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 18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함께 실시했다.

한편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1회용 비닐봉투 대신(일반쓰레기봉투와 같은 가격)에 담아간 뒤, 가정에서 쓰레기 처리 봉투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비용절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오리온 초코파이 가격 20% 인상

### 후레쉬베리·고소미 등 6개 제품 11.9% ↑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비롯해 6개 제품가격을 평균 11.9%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초코파이 가격을 4000원에서 4800원(20%), 후레쉬베리를 3000원에서 3200원(6.7%), 참봉어빵을 2500원에서 2700원(8%), 고소미를 1200원에서 1500원(25%)으로 각각 올렸다.

미즈블랙 76g당 1200원에서 84g당 1400원(5.6%)으로, 초코칩미니쿠키 82g당 1200원에서 90g당 1400원(6.3%)으로 각각 변경했다. 가격은 권장소비자가 기준이며, 내

년 1월 생산분부터 점차 조정된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가격을 2008년부터 4년6개월간 동결했다.

다만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초코파이는 경쟁제품인 롯데 몽셀(6000원)보다 20% 저렴하다고 오리온은 설명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 전 부문에서 원가압박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격조정 품목을 최소화했다”며 “6개 품목을 제외한 50여개 품목의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주) 오 천 경 매

직통, 010-3605-5000

대표, 최 선 규 드림

경매에 투자 하실 분

- ▶ 투자금 1억원 이상
- ▶ 지분/공동투자 방식
- ▶ 제1순위 근저당 방식
-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 ▶ 수익률, 년 15% 이상
- ▶ 투자기간, 1년정도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 오직 경매만 하실 분
- ▶ 현, 5명 근무 4명 모집
- ▶ 책상/컴퓨터등 집기 제공
- ▶ 사업자 가능/여직원 보조
- ▶ 공동투자, 권리분석등 혜택
- ▶ 사용료, 1200만원(1년)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낙찰 사례 실전 교육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 주 1회/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급매”

1.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3층 53평  
전체 올수리, 코너, 전망 좋음  
주거겸사무실(방2, 거실)  
매매가, 1억5500만원(시세 2억)
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상가, 1층 25평  
현, 보3천만원에 월125만원 임대 중  
대출 7500만원 가능)  
매매가, 1억7500만원(시세 2억5천만원)